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 20-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0. 8.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조 경 엽	선임연구위원
김 창 배	부 연구 위 원

< 차 례 >

요 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성장률	3
2. 생산	4
3. 소비	7
4. 투자	8
5. 대외거래	11
6. 물가	15
7. 고용	17
8. 금리와 환율	18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21
1. 대내외 여건	23
2. 2010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28
제 III 장 이슈분석: 지방재정난 해법	37
부 록	49

< 표 차례 >

〈표 I-1〉 최종수요별 증가율	4
〈표 I-2〉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생산증가율	5
〈표 I-3〉 제조업 주요 업종별 생산증가율	6
〈표 I-4〉 유형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8
〈표 I-5〉 유형별 설비투자 증가율	10
〈표 I-6〉 발주자별, 공종별 건설기성액(경상) 증가율	11
〈표 I-7〉 용도별 수입	14
〈표 I-8〉 경상수지	15
〈표 I-9〉 상품별 소비자물가	16
〈표 II-1〉 주요국 성장률 전망	23
〈표 II-2〉 유가 전망	26
〈표 II-3〉 2010년 재정규모와 증가율	27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28
〈표 II-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31
〈표 II-6〉 미분양주택	31
〈표 II-7〉 주요 환율 전망	34
〈표 II-8〉 2010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35
〈표 III-1〉 재정자립도	42
〈표 III-2〉 지방채무	43
〈표 III-3〉 지방재정관리제도	45

< 그림 차례 >

<그림 I - 1> GDP 증가율	3
<그림 I - 2> 부문별 성장 기여도	3
<그림 I - 3> 생산증가율(원계열)	5
<그림 I - 4> 생산지수(계절조정)	5
<그림 I - 5> 소매판매액	7
<그림 I - 6> 유형별 소매판매액	7
<그림 I - 7> 설비투자	9
<그림 I - 8> 유형별 설비	9
<그림 I - 9> 건설기성(경상)	10
<그림 I - 10> 건설수주(경상)	10
<그림 I - 11> 수출금액	12
<그림 I - 12> 물량 및 단가지수	12
<그림 I - 13> 품목별 수출	12
<그림 I - 14> 지역별 수출	12
<그림 I - 15> 수입금액	13
<그림 I - 16> 물량 및 단가지수	13
<그림 I - 17> 무역수지	14
<그림 I - 18> 주요국별 무역수지	14
<그림 I - 19> 소비자물가	16
<그림 I - 20> 생산자 및 수입물가	16
<그림 I - 21> 아파트가격(전국)	16
<그림 I - 22>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17
<그림 I - 23> 연령별 취업자 증감	17
<그림 I - 24> 산업별 취업자 증감	18
<그림 I - 25> 직업별 취업자 증감	18
<그림 I - 26> 기준금리 추이	19
<그림 I - 27> 시장금리	19
<그림 I - 28> 원화 환율	19
<그림 I - 29> 주요 통화가치	19

〈그림 II- 1〉 최근 주요국 성장률	23
〈그림 II- 2〉 최근 국제유가 추이	26
〈그림 II- 3〉 반기별 성장률	29
〈그림 II- 4〉 경기종합지수.....	29
〈그림 II- 5〉 제조업임금과 취업자 증감	30
〈그림 II- 6〉 소비심리지수.....	30
〈그림 II- 7〉 건설기업 BSI	31
〈그림 II- 8〉 GDP갭률	33
〈그림 II- 9〉 유가 및 원화가치 전망.....	33
〈그림 II- 10〉 달러가치 전망.....	34
〈그림 III- 1〉 연도별 지자체 순계예산 규모.....	40

I. 최근 경제동향

■ 2/4분기 실질GDP: 전기 대비 1.5%(전년동기 대비 7.2%) 상승

- 전 분기(2.1%)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설비투자, 수출입 증가세는 크게 확대
 - 반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증가세는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고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반전
-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p)는 상승한 반면 내수(소비+고정투자)와 재고의 기여도는 전 분기에 비해 하락

■ 제조업 생산: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

- 1/4분기(전년동기 대비 26.9%)에 이어 큰 폭 증가세 이어감.
 - 기타기계 및 장비(51.8%), 자동차 및 트레일러(35.4%), 1차금속(27.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26.8%)가 큰 폭 증가세
 - 반면 담배(-9.8%), 기타운송장비(-10.2%)는 부진 지속

■ 서비스업 생산: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

- 1/4분기(전년동기 대비 5.7%)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운수업(13.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1%), 도소매업(5.5%)은 호조
 - 반면 금융·보험업(2.2%), 숙박·음식점업(0.9%), 교육서비스업(1.1%)은 전체 증가율을 하회하였고 부동산·임대업(-2.7%)은 감소세로 반전

■ 소매판매액: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

- 1/4분기(9.8%)에 비해 둔화
 - 내구재(5.4%), 준내구재(7.1%)가 전체 증가율(4.9%)을 상회
 - 전 분기에 비해서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의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큰 폭 둔화

■ 설비투자: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

- 1/4분기(25.54%)에 이어 큰 폭 증가세 지속
 - 기계투자(32.2%)는 호조를 보인 반면 운송장비투자(0.0%)는 부진

■ 건설투자: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 1/4분기(4.9%)에 비해 증가세 둔화
 - 공공부문의 증가세(11.4%: 1/4분기 → 5.7%: 2/4분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회복세도 미흡(2.8% → 3.2%)
 - 공중별로는 건축(-2.8%)은 부진. 토목(9.6%)은 증가세 지속

■ 수출: 상반기 중 35.0% 증가

- 1/4분기(36.2%)에 이어 2/4분기(34.0%)에도 높은 증가세 지속
 - 일평균수출액(억 달러): 14.9(2009년 4/4분기) → 15.1(2010년 1/4분기) → 17.7(2/4분기)
 -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반등한 데 기인
 - 품목별로는 반도체(97.3%), 자동차(89.6%) 등이 큰 폭 증가세 주도
 - 지역별로는 중남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 수출 대폭 확대

■ 수입: 상반기 중 40.0% 증가

- 올 1/4분기 이후 수출증가세를 상회(1/4분기 37.2%, 2/4분기 42.7%)
 - 일평균수입액(억 달러): 13.2(2009년 4/4분기) → 14.6(2010년 1/4분기) → 15.4(2/4분기)
 - 상반기 중 수입물량과 수출단가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반등
 - 용도별로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증가세를 주도

■ 무역수지: 상반기 중 190억 달러 흑자

- 전년 상반기(194억 달러)에 비해 소폭 확대
 - 중국, 홍콩, 중남미, 아세안 등과는 무역흑자가 확대
 - 유가상승, 자본재 수입 등으로 對중동, 對일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
 - 미국 및 EU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은 소폭 축소

■ 경상수지: 상반기 중 약 116억 달러 흑자

- 지난해 상반기 중 경상수지 흑자(217억2천만 달러)에 비해 대폭 축소
 - 상품수지의 흑자가 축소되고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확대
 - 소득수지의 흑자가 축소되고 경상이전수지는 적자로 반전

■ 소비자물가, 2/4분기 중 2.6% 증가

- 환율 상승, 유가안정 등으로 1/4분기(2.7%)보다 소폭 하락
 - 원화가치 하락(1/4분기 2.4% → 2/4분기 -7.7%), 유가상승세 둔화(1/4분기 66.7% → 2/4분기 25.0%)
- 생산자물가는 4월 3%대로 진입 이후 5, 6월 연속 4.6% 증가

■ 취업자 수, 1/4분기 13만2천 명, 2/4분기 43만3천 명 상반기 전체 28만3천 명 증가

- 고용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은 미흡
 - 청년실업률 확대: 8.3%(2009년 상반기) → 8.6%(2010년 상반기)
 - 50세 이상 위주의 취업자(33만1천 명)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상회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이 전체의 97% 차지
 -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가 전체의 89% 차지

■ 시장금리: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

-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7월 8일

0.25%p)의 기대감으로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반전

• 회사채(3년, AA-, %): 4.48(5월) → 4.65(6월) → 4.80(7월 26일)

■ 원화가치, 3월 이후 약세로 반전되었으나 7월 들어 1,200원 전후 등락

- 유럽 재정위기 진정조짐, 위안화 절상, 국내 기준금리 인상, 무역수지 흑자 등이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원/달러(평균): 1,163(5월) → 1,212(6월) → 1,194(7월 27일)

II.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 하반기 회복세 다소 약화

- 중국 및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조짐, 유럽 재정문제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회복세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

① 중국, 긴축강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 조짐

• 인플레이 및 자산시장 버블 억제를 위한 긴축조치 강화

• 최근 제조업PMI,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의 상승세 다소 약화

② 미국, 고용불안 및 주택경기 불투명으로 소비 회복 지연 우려

• 비농림 민간고용증가(만 명) 둔화: 15.8(3월), 24.1(4월), 3.3(5월), 8.3(6월)

• 생애 최초주택구매자 세제공제 혜택 종료(4월) 주택판매 하락

• 소매판매(전월비%) 연속 두 달 감소: 0.6(4월), -1.0(5월), -0.5(6월)

• FRB의 올 미국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4월 3.2~3.7% → 7월 3~3.5%

③ 유럽 재정긴축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 PIIGS국 재정위기 우려로 전 유럽국가들 강력한 재정긴축 시행

• ECB가 유로존 은행에 공급한 대출(4,420억 유로) 회수로 신용경색 우려

■ 국제유가,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세 제약요인

- 유럽 재정문제에 따른 긴축, 중국 등 경기부양책의 단계적 축소 등
- 달러화 약세 완화에 따른 석유제품에 대한 자금 유입 감소
- 주요국의 석유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
- 선진국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대체에너지 활용 증가 등으로 석유수요의 구조적 변화

■ 국제금융시장, 유럽위기 점차 안정되겠으나 높은 불확실성 지속 예상

- EU, IMF의 구제금융 등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면서 유럽 재정문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갈 전망

- 7,500억 유로의 지원은 유로권 총재정수지 적자 규모(-6.6%)와 유사
- 재정문제로 크게 치솟았던 그리스의 CDS프리미엄도 최근 하락세
- 재정문제 관련국들의 국채발행 성공

- 하지만 시장불안의 재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높은 변동성은 지속

-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의 경우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사회보장비 과다 지출 등으로 재정적자 축소 쉽지 않은 구조
- 각국이 실효성 있는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또한 유로존 금융회사가 보유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채권은 2조 유로로 유로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2%에 이르는 규모

■ 대내여건,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에 따른 경기부양여력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들 정상화

- 중소기업 신용보증 비율 하향조정: 95%(2009년) → 90%(2010년 상반기)
- 은행자본확충펀드 보유 후순위채 시장 매각(3월)
- 재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하반기 중 종료 예정

- 2010년 재정규모, 재정 건전성 강화로 전년 대비 감소
 - 2010년 예산은 291조8천억 원으로 2009년 추경(301조8천억 원) 대비 3.3% 감소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0.1%)의 영향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40%(약 108조 원)에 불과

-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동
 -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 2.00%(2009년 2월) → 2.25%(2010년 7월)
 - 추가 인상 시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높아져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이 감소되고 투자도 위축
 -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해 부동산 침체가 심화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 자본유입이 증가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채산성 악화를 통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2. 2010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 2010년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 IMF 전망(2010년 7월)을 따라 중국 10.5%, 일본 2.4%, 미국 3.3% 전제
- 국제유가는 주요예측기관의 전망치를 감안해 배럴당 75달러 가정
- 기준금리, 대내외 불안요인을 감안해 완만한 인상을 전제

전망의 주요 전제

외생변수	단위	2009년	2010년
GDPCH(중국 성장률)	%	9.2	10.5
GDPJP(일본 성장률)	%	-5.2	2.4
GDPUS(미국 성장률)	%	-24	3.3
OIL\$DUBAI(두바이)	달러/bbl	61.8	75.0
RP(기준금리, 기말)	%	2.00	2.75

■ 경제성장률: 7.6%(상반기) → 4.6%(하반기), 6.1%(연간)

- 하반기, 상반기에 비해 성장속도 둔화 전망

- 하반기 재정 및 통화 정책 정상화 시행에 따른 내수회복세 둔화
-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환율변동성 확대에 의한 수출 둔화
- 기저효과 약화: -3.2%(전년동기 대비, 2009년 상반기) → 3.5%(2009년 하반기)

■ 민간소비: 5.0%(상반기) → 3.4%(하반기), 4.2%(연간)

- 하반기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경기 약세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 둔화

- 취업자 증가에 크게 기여한 희망근로사업 8월에 종료 예정 → 고용 회복세 약화
- 부동산 경기 하강, 물가상승 등 소비회복세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소비심리지수, 올 들어 증가세 둔화 추세

■ 설비투자: 29.4%(상반기) → 12.8%(하반기), 20.3%(연간)

- 2010년 연간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환율 하락 등을 바탕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 하반기에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전망

- 대외적 불확실성, 대내적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 원자재 가격 및 금리상승 등 투자비용 상승
- 대기업(7월)에 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 건설투자: -0.6%(상반기) → -1.1%(하반기), -0.9%(연간)

- 하반기에는 재정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정책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

- 국내건설수주 감소세 전환: -5.8%(2009년 상반기) → 9.4%(하반기) → -3.5%(2010년 1~5월)

- 하반기 사업비(예산, 기금, 공기업) 감소: 163조 원(2010년 상반기) → 108조 원(하반기)
- 민간주택의 신규 분양침체, 준공 후 미분양누적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 지방선거 이후 정책리스크 확대: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의정부 경전철,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인 아라뱃길 재검토 등

■ 경상수지: +116억 달러(상반기) → +84억 달러(하반기), +200억 달러(연간)

- 수입과 수출증가세 격차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반기에 비해 축소
 - 수출은 선진국의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의 경기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 중 약 17% 내외의 증가율로 둔화
 - 하지만 수입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빠른 약 25%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서비스수지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가 지속될 전망

■ 소비자물가: 2.6%(상반기) → 3.2%(하반기), 연간 2.9%

- 하반기 총수요압력 증가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대 상승 전망
 - GDP갭률이 올 1/4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전
 - 최근 위안화 절상도 수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
- 단, 세계경제의 둔화 조짐으로 원유를 포함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원화도 절상추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률 크지 않을 듯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4.9%(상반기) → 5.1%(하반기), 5.0%(연간)

- 시장금리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점차 상승하며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준금리인상이 매우 완만
 -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될 전망

- 글로벌 경기의 하강 가능성으로 금리 상승 압력 하락

■ 원/달러 환율: 1,154원/달러(상반기) → 1,133원/달러(하반기), 1,143원/달러(연간)

- 유럽 재정위기 진정조짐, 미국 성장 둔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대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개선,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등은 수급측면에서 원화가치 상승요인
 -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위안화 절상 가능성도 원화의 상승요인
 - 미국의 회복세 둔화 전망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전망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분	2009년	2010년						
	연간	1/4	2/4	3/4	4/4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0.2	8.1	7.2	4.4	4.9	7.6	4.6	6.1
(SA, 전기 대비%)		2.1	1.5	0.6	0.7	3.0	1.7	
민간소비	0.2	6.3	3.7	3.2	3.6	5.0	3.4	4.2
건설투자	4.4	2.3	-2.7	-1.9	-0.4	-0.6	-1.1	-0.9
설비투자	-9.1	29.9	29.0	15.7	10.1	29.4	12.8	20.3
소비자물가	2.8	2.7	2.6	2.9	3.5	2.6	3.2	2.9
생산자물가	-0.2	2.6	4.2	4.1	4.5	3.4	4.3	3.9
경상수지(억 달러)	426.7	13.4	102.8	35.9	47.7	116.1	83.6	199.8
상품수지(억 달러)	561.3	74.3	156.5	94.7	100.5	230.8	195.2	426.0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35.8	1036.3	1206.8	1199.0	1196.7	2243.1	2395.7	4638.9
증가율%	-13.8	32.6	34.6	21.5	11.8	33.6	16.5	24.2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174.6	962.0	1050.3	1104.4	1096.2	2012.3	2200.6	4212.8
증가율%	-25.7	37.7	45.7	31.5	19.8	41.7	25.4	32.7
서비스 및 기타수지	-134.6	-61.0	-53.7	-58.7	-52.9	-114.7	-111.6	-226.3
환율(원/달러, 평균)	1278.4	1144.1	1163.5	1145.0	1120.0	1153.8	1132.5	1143.1
회사채수익률(3yrs, AA-)	5.8	5.3	4.6	4.9	5.2	4.9	5.1	5.0
실업률(%)	3.6	4.7	3.5	3.4	3.4	4.1	3.4	3.8

Ⅲ. 이슈분석: 지방재정난 해법

1. 논의 배경

- 성남시 지불유예선언(moratorium), 호화청사 신·증축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지방정부 파산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독이나 중앙정부의 상시감독이 취약하고 재정위기 조기경보체제 및 대응능력 미흡
 - 지방채와 지방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국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재정 현황
 - 2009년 통합재정수지 7조1천억 원 적자 발생
 - 재정수지 적자는 세입측면에선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와 비과세 감면 확대에서 기인
 -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소요 급증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대응한 지방비 지출 증가가 재정적자 원인으로 작용
 - 청사 신·증축 비용과 지역축제 및 행사비용 등도 지방재정 악화에 일조
 - 2010년 지자체 순계예산은 138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쳐 지난 5년 연평균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세입은 일반재원(-2.2%)은 감소하고, 국고보조금(12.1%)은 큰 폭 증가
 - 세출은 사회복지(9.9%), 일반공공행정(15.7%), 문화·관광(9.9%)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10.4%), 과학기술(-41%) 등에 대한 지출은 감소

■ 지방재정 문제점

- 재정자립의 지속적인 악화
 - 1998년 63.4%에 달하던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0년 만인 2007년에는 53.6%로 10%p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52.2%로 하락
 - 2010년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는 137개(전체의 55.7%)
- 지방채무의 급속한 증가
 - 지방채무는 2009년 말 기준 25조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
-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
 - 2008년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47조3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1% 증가. 이는 지방 총채무의 2.5배에 달하는 규모
 -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채무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방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잠재적 지방재정 부담요인
-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의 자율성·책임성·효율성 문제 야기
 - 세입부문 분권수준이 낮아 이전재원 의존도(2009년 38.5%)가 높음.
 -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지방세) 간 연계를 통한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수행
- 과세 자주권 활용 유인 부족
 -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정치적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세 자주권을 활용하지 않으려 함.
- 세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 시스템 취약

3. 정책대안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주민소환제도 등 사전적·사후적 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 재정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자체장의 기능을 정지하고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그 권한을 상급 지자체 또는 정부가 대행
- 주민소환제도 강화, 주요 재정소요 정책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등

■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강화

- 과세자주권 강화로 자체 자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이전재원 비중을 줄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재산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의 세목을 단일 세목으로 통합
-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체수입 확보 인센티브 강화

■ 지방공기업 채무의 지방정부 채무 포함 및 민영화 추진

- 지방공기업 부채 대부분이 지방정부 정책사업 대행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정부 채무로 분류하고 관리
 - 적자가 지속되는 지방공기업은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게 구조조정 시행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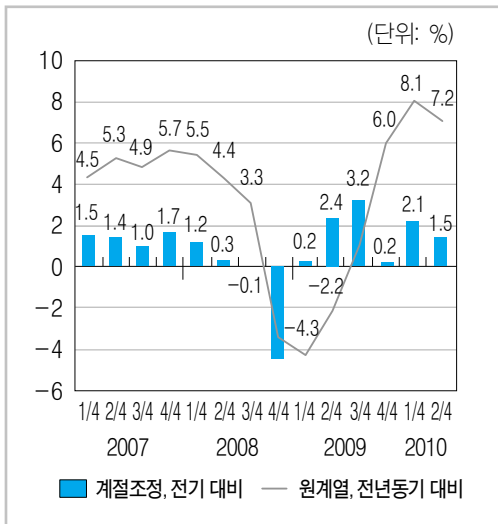
1. 성장률
2. 생산
3. 소비
4. 투자
5. 대외거래
6. 물가
7. 고용
8. 금리와 환율

1.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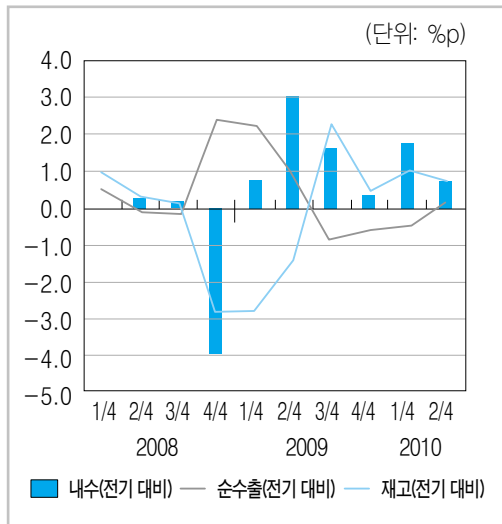
■ 2/4분기 실질GDP: 전기 대비 1.5%(전년동기 대비 7.2%) 상승

- 전 분기(2.1%)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설비투자, 수출입 증가세는 크게 확대
 - 반면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증가세는 성장률에 미치지 못했고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반전
-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p)는 상승한 반면 내수(소비+고정투자)와 재고의 기여도는 전 분기에 비해 하락
 - 순수출: -0.5(2010년 1/4분기) → 0.1(2/4분기), 내수: 1.7 → 0.7, 재고 1.0 → 0.7

<그림 1 - 1> GDP 증가율



<그림 1 - 2> 부문별 성장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표 1 - 1〉 최종수요별 증가율

(단위: 계절조정, 전기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0.2	2.4	3.2	0.2	2.1	1.5
민간소비	0.3	3.3	1.7	0.4	0.7	0.8
정부소비	2.9	0.7	0.0	-2.4	5.8	0.1
건설투자	5.9	1.8	-0.7	-0.1	1.3	-3.4
설비투자	-10.5	9.0	10.8	5.3	2.4	8.1
무형고정투자	-2.5	5.5	-1.1	1.3	-4.7	-2.8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3.2	10.0	4.4	-1.0	2.9	7.0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6.4	8.8	6.5	0.1	4.4	7.1

자료: 통계청

2. 생산

■ 제조업 생산: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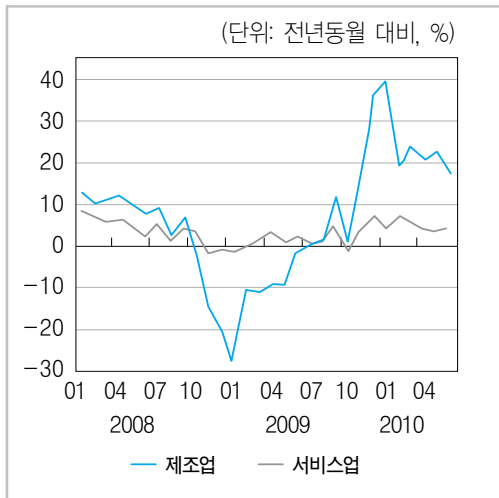
- 1/4분기(전년동기 대비 26.9%)에 이어 큰 폭 증가세 이어감.
 - 기타기계 및 장비(51.8%), 자동차 및 트레일러(35.4%), 1차금속(27.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26.8%)가 큰 폭 증가세
 - 반면 담배(-9.8%), 기타운송장비(-10.2%)는 부진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4~5월 평균 82.5%로 1/4분기(80.5%)에 비해 상승
 - 제조업 평균가동률(%): 78.4(2009년 4/4분기) → 80.5(2010년 1/4분기) → 83.0(2/4분기)

■ 서비스업 생산: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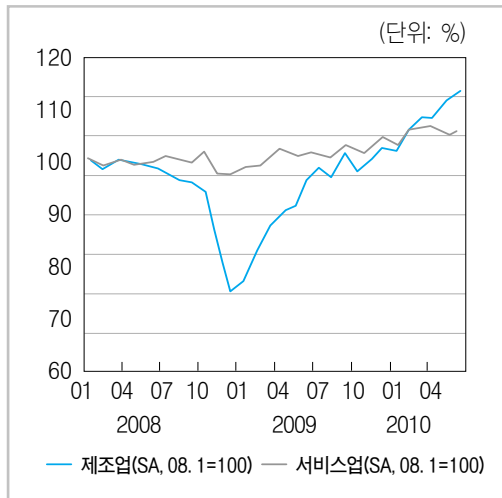
- 1/4분기(전년동기 대비 5.7%)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운수업(13.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1%), 도소매업(5.5%)은 호조
- 반면 금융·보험업(2.2%), 숙박·음식점업(0.9%), 교육서비스업(1.1%)은 전체 증가율을 하회하였고 부동산·임대업(-2.7%)은 감소세로 반전

<그림 1-3> 생산증가율(원계열)



<그림 1-4> 생산지수(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표 1-2>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총지수	-0.3	2.4	1.9	3.7	5.7	4.0
운수업	-12.7	-10.0	-4.8	1.4	14.0	13.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9	8.9	10.4	13.2	11.5	11.1
도매 및 소매업	-4.8	-2.2	0.3	5.4	7.5	5.5
금융 및 보험업	6.9	10.2	9.0	5.8	6.5	2.2
교육서비스업	9.3	16.5	-3.7	-9.6	-0.8	1.1
숙박 및 음식점업	-2.6	-0.6	-2.6	-0.2	1.5	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1.6	1.3	1.8	1.3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	-2.2	6.7	21.3	10.4	-2.7

자료: 통계청

〈표 1-3〉 제조업 주요 업종별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제조업	-16.5	-6.6	4.4	16.9	26.9	20.1
기타기계 및 장비	-24.3	-18.2	-10.4	8.7	41.9	5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32.5	-19.0	15.9	14.7	51.0	35.4
1차 금속	-27.1	-16.9	-5.3	17.6	38.6	27.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9.5	-0.4	13.2	46.3	46.1	26.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9.7	-12.2	-10.8	1.7	3.2	15.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5	1.9	1.8	5.8	24.4	14.7
전기장비	-6.3	2.5	4.3	9.2	17.6	14.0
섬유제품(의복 제외)	-14.7	-8.9	-2.8	2.3	16.4	13.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6.2	-15.1	-5.6	-2.6	9.7	1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3.6	-12.2	-1.3	6.5	25.1	11.1
비금속 광물제품	-12.2	-3.8	0.0	8.5	13.3	9.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5	-7.4	2.1	9.5	16.4	8.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8.0	3.0	6.1	21.0	12.8	5.3
식료품	-8.9	-1.7	4.6	5.0	8.3	4.4
가죽, 가방 및 신발	-14.7	-14.3	-13.2	-9.6	-7.3	2.3
담배	14.4	-7.6	-9.3	4.1	-10.3	-9.8
기타운송장비	22.3	15.1	18.4	-2.5	-6.0	-10.2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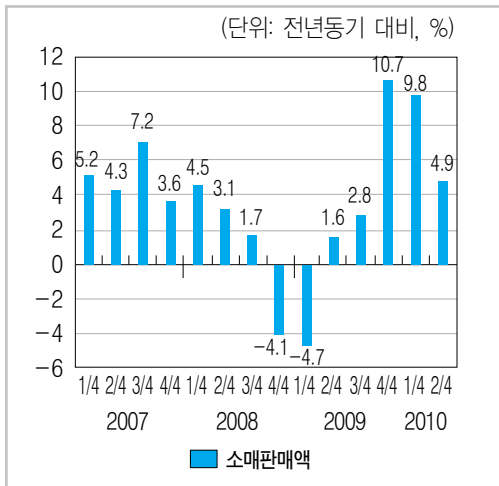
3. 소비

■소매판매액: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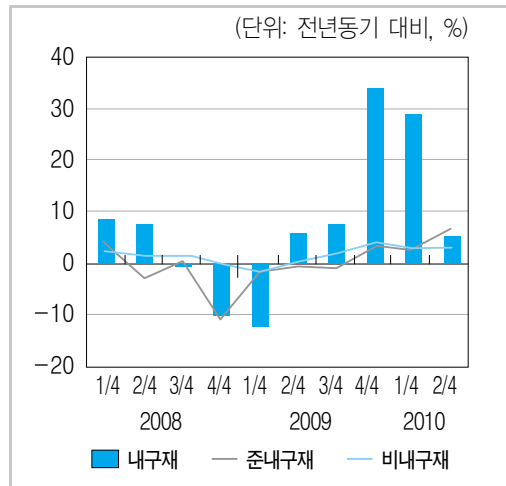
- 1/4분기(9.8%)에 비해 둔화

- 전년동기 대비(%): 10.7%(2009년 4/4분기) → 9.8%(2010년 1/4분기) → 4.9%(2/4분기)
- 내구재(5.4%), 준내구재(7.1%)가 전체 증가율(4.9%)을 상회
- 전 분기에 비해서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의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큰 폭 둔화

<그림 1 - 5> 소매판매액



<그림 1 - 6> 유형별 소매판매액



자료: 통계청

〈표 1 - 4〉 유형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합계	-4.7	1.6	2.8	10.7	9.9	4.9
내구재	-11.9	5.8	7.8	33.8	29.4	5.4
승용차	-20.7	20.1	24.1	76.9	48.6	-2.0
가전제품	-1.8	4.0	-1.8	15.6	18.6	8.8
컴퓨터 및 통신기기	-6.1	-7.1	-0.8	7.9	20.0	14.7
준내구재	-1.5	-0.5	-0.7	3.4	2.7	7.1
의복	-1.6	-1.8	-2.0	1.8	1.1	5.5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1.9	4.7	2.4	9.4	10.9	12.3
비내구재	-1.4	0.5	1.8	4.1	3.3	3.4
음식료품	-1.1	-1.6	0.1	5.9	4.3	4.0
차량연료	-3.0	1.9	2.9	2.2	1.5	1.1

자료: 통계청

4. 투자

■ 설비투자: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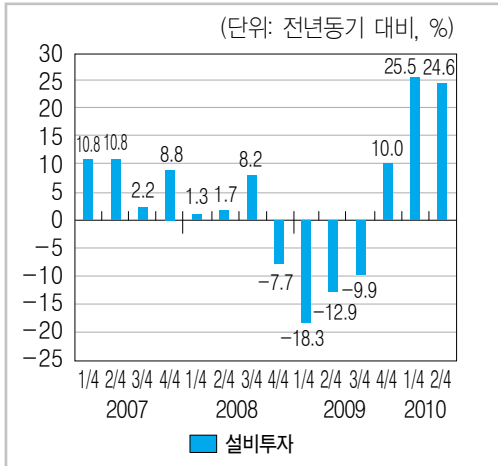
- 1/4분기(25.54%)에 이어 큰 폭 증가세 지속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10.0%(2009년 4/4분기) → 25.5%(2010년 1/4분기) → 24.6%(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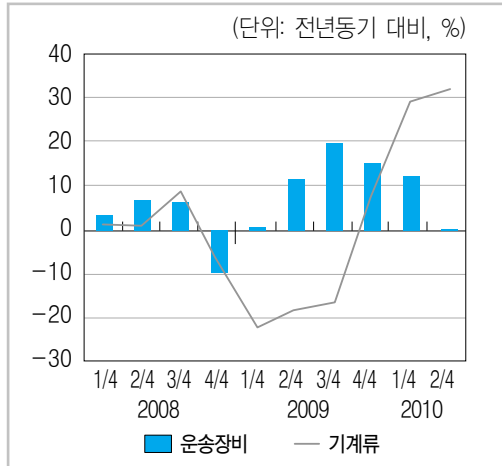
- 기계투자는 호조를 보인 반면 운송장비투자는 부진

- 기계류투자: 8.7%(2009년 4/4분기) → 29.3%(2010년 1/4분기) → 32.2%(2/4분기)
- 운송장비투자: 15.0%(2009년 4/4분기) → 11.9%(2010년 1/4분기) → 0.0%(2/4분기)

<그림 1-7> 설비투자



<그림 1-8> 유형별 설비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 1/4분기(4.9%)에 비해 증가세 둔화

- 공공부문의 증가세(11.4%: 1/4분기 → 5.7%: 2/4분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회복세도 미흡(2.8% → 3.2%)
- 공중별로는 건축(-2.8%)은 부진. 토목(9.6%)은 증가세 지속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가세는 1/4분기 6.9% 감소에 이어 2/4분기 중에도 6.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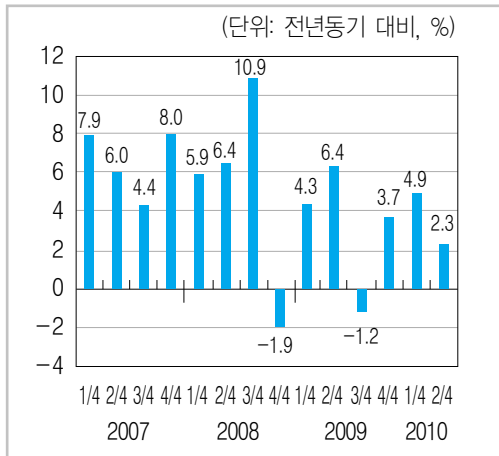
〈표 1 - 5〉 유형별 설비투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전체	-18.3	-12.9	-9.9	10.0	25.5	24.6
기계류	-22.3	-18.4	-16.5	8.7	29.2	32.2
일반기계류	-33.5	-26.9	-17.6	20.4	73.6	72.9
전기 및 전자기기	-9.0	-5.5	-15.7	-1.1	-9.3	-1.8
정밀기기	-26.9	-25.8	-30.1	-20.3	5.0	-23.0
기타기기	-2.7	-8.7	-3.7	11.9	-4.5	6.1
운송장비	0.4	11.4	19.5	15.0	11.9	0.0
자동차	-7.4	10.7	23.2	29.6	15.5	1.1
기타운송장비	44.0	14.3	6.1	-30.8	-1.3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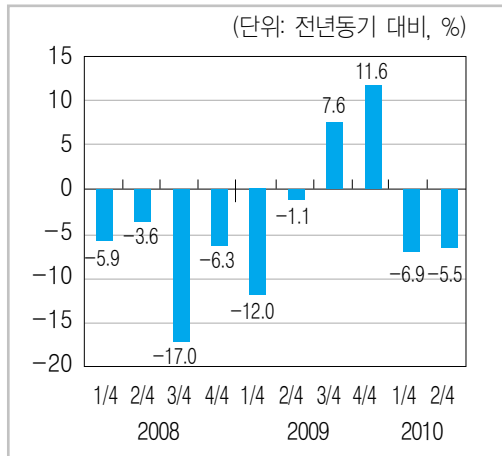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 9〉 건설기성(경상)



자료: 통계청

〈그림 1 - 10〉 건설수주(경상)



〈표 I - 6〉 발주자별, 공종별 건설기성액(경상)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기성총액		4.3	6.4	-1.2	3.7	4.9	3.2
발주자별	공공기관	24.5	31.9	21.3	10.7	11.4	5.7
	민간기관	-5.3	-5.9	-11.8	0.4	2.8	3.2
공종별	건축	-7.0	-4.8	-7.6	-0.5	2.8	-2.8
	주거용	-13.1	-8.5	-11.2	-2.3	4.2	-8.7
	비주거용	4.3	2.6	-0.6	2.4	0.5	7.9
	토목	25.7	27.6	11.2	9.7	7.8	9.6
	일반토목	28.7	25.7	12.7	-0.1	0.6	-0.9
	전기기계	-13.3	26.2	56.7	95.1	115.0	96.7
	플랜트	29.0	33.5	1.3	24.8	7.6	22.9
	조경공사	-37.0	11.9	10.5	10.6	156.1	54.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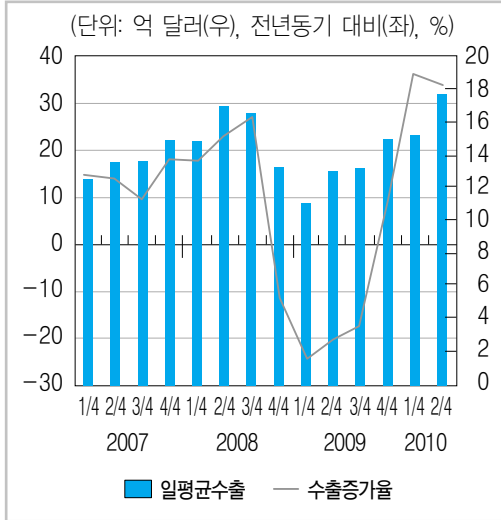
5. 대외거래

■ 수출: 상반기 중 3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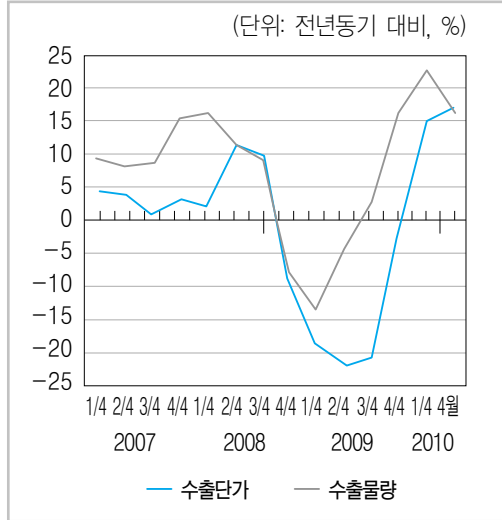
- 1/4분기(36.2%)에 이어 2/4분기(34.0%)에도 높은 증가세 지속

- 일평균수출액(억 달러): 14.9(2009년 4/4분기) → 15.1(2010년 1/4분기) → 17.7(2/4분기)
-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반등한 데 기인
- 품목별로는 반도체(97.3%), 자동차(89.6%) 등이 큰 폭 증가세 주도
- 지역별로는 중남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 수출 대폭 확대

<그림 1 - 11> 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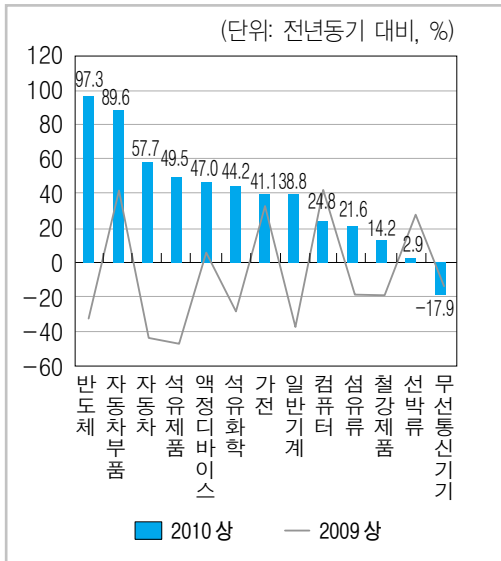


<그림 1 - 12> 물량 및 단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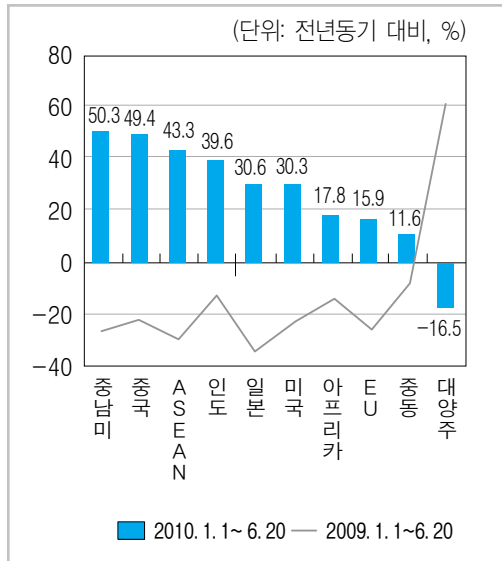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그림 1 - 13> 품목별 수출



<그림 1 - 14>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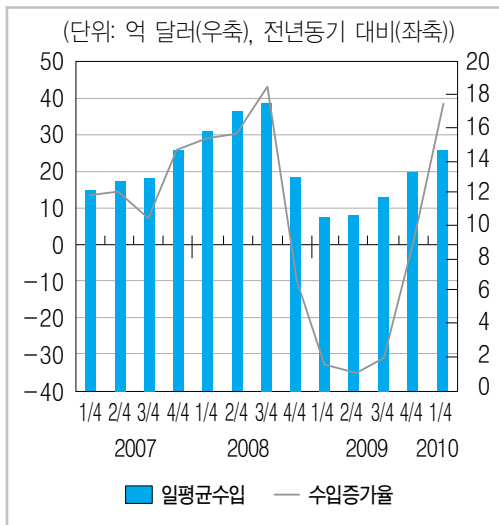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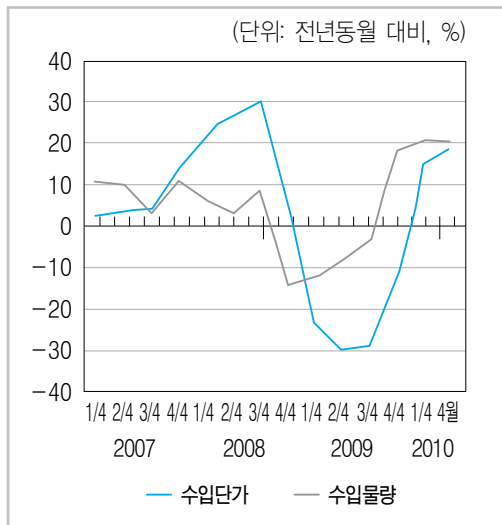
■수입: 상반기 중 40.0% 증가

- 올 1/4분기 이후 수출증가세를 상회(1/4분기 37.2%, 2/4분기 42.7%)
 - 일평균수입액(억 달러): 13.2(2009년 4/4분기) → 14.6(2010년 1/4분기) → 15.4(2/4분기)
 - 상반기 중 수입물량과 수출단가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반등
 - 용도별로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증가세를 주도. 이에 따라 원자재 비중이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
 - ※원유 도입물량은 전년 상반기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도입단가가 약 60%(49.7달러/bbl(2009년 상반기) → 79.2달러/bbl(2010년 상반기)) 상승

<그림 I - 15> 수입금액



<그림 I - 16> 물량 및 단가지수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표 1-7> 용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09년(1. 1~6. 20)			2010년(1. 1~6. 2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입	1,367	-35.1	100.0	1,909	38.7	100.0
원자재	781	-40.1	57.2	1,140	44.0	59.7
자본재	440	-27.2	32.2	583	32.0	30.5
소비재	145	-26.8	10.6	184	28.7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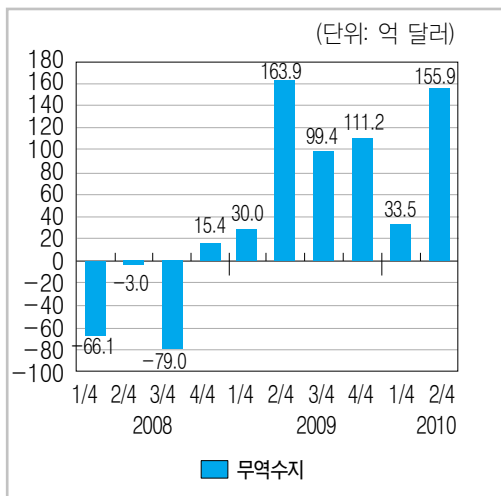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 무역수지: 상반기 중 190억 달러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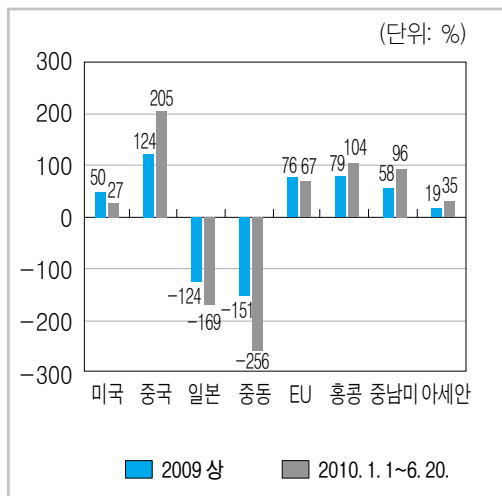
- 전년 상반기(194억 달러)에 비해 소폭 확대

- 중국, 홍콩, 중남미, 아세안 등과는 무역흑자가 확대
- 유가상승, 자본재 수입 등으로 對중동, 對일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
- 미국 및 EU지역 무역수지 흑자폭은 소폭 축소

<그림 1-17> 무역수지



<그림 1-18> 주요국별 무역수지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경상수지: 상반기 중 약 116억 달러 흑자

- 지난해 상반기 중 경상수지 흑자(217억2천만 달러)에 비해 대폭 축소
 -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확대
 - 소득수지의 흑자가 축소되고 경상이전수지는 적자로 반전

〈표 I - 8〉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비교	
	연간	1/4	2/4	2010년 상반기	2009년 상반기
경상수지(=A+B+C+D)	426.7	13.4	102.8	116.1	217.2
A. 상품수지	561.3	74.3	156.5	230.8	258.8
B. 서비스수지	-172.0	-60.4	-41.7	-102.1	-60.9
여행수지	-38.9	-19.9	-13.6	-33.5	-5.5
C. 소득수지	45.5	7.6	-7.5	0.0	12.2
D. 경상이전수지	-8.1	-8.1	-4.5	-12.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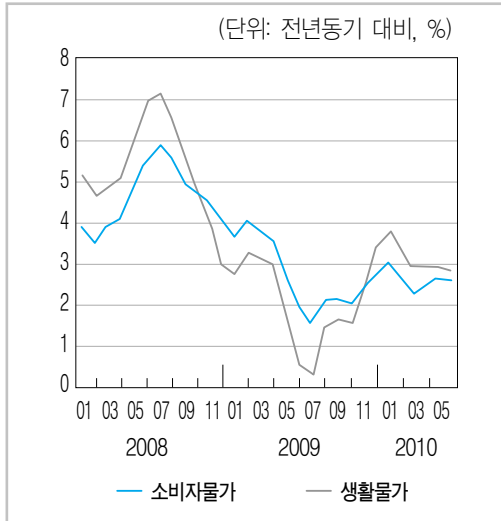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6. 물가

■ 소비자물가, 2/4분기 중 2.6% 증가

- 환율 상승, 유가안정 등으로 1/4분기(2.7%)보다 소폭 하락
 - 원화가치 하락(1/4분기 2.4% → 2/4분기 -7.7%), 유가상승세 둔화(1/4분기 66.7% → 2/4분기 25.0%)
- 생산자물가는 4월 3%대로 진입 이후 5, 6월 연속 4.6% 증가
- 수입물가도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5월에는 11.3% 증가
- 아파트 매매가격은 둔화된 반면 전세가격은 높은 증가세 지속

<그림 1 - 19>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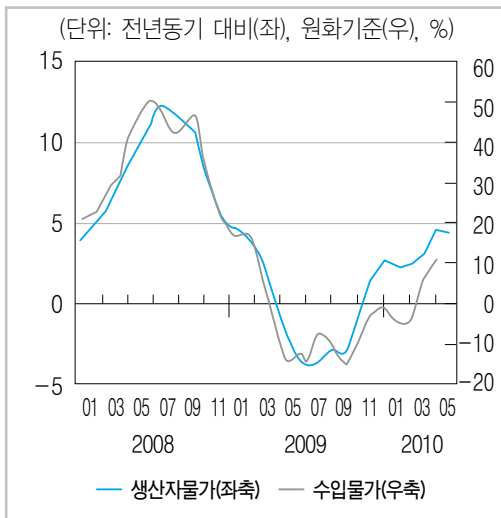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표 1 - 9> 상품별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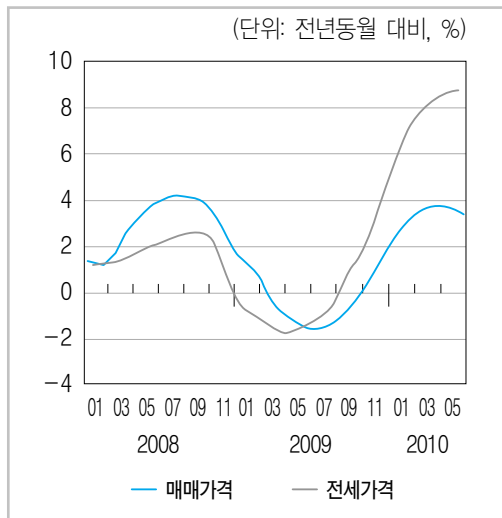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총지수	3.9	2.8	2.0	2.4	2.7	2.6
상품	4.9	3.3	1.7	3.3	3.8	3.8
농축수산물	7.1	9.9	5.0	3.9	3.6	5.2
공업제품	4.4	1.7	1.0	3.1	3.9	3.4
서비스	3.3	2.3	2.1	1.9	2.0	1.8
집세	2.1	1.6	1.3	1.2	1.4	1.8
공공서비스	2.0	1.6	2.3	1.9	1.7	1.3

<그림 1 - 20> 생산자 및 수입물가



자료: 통계청

<그림 1 - 21> 아파트가격(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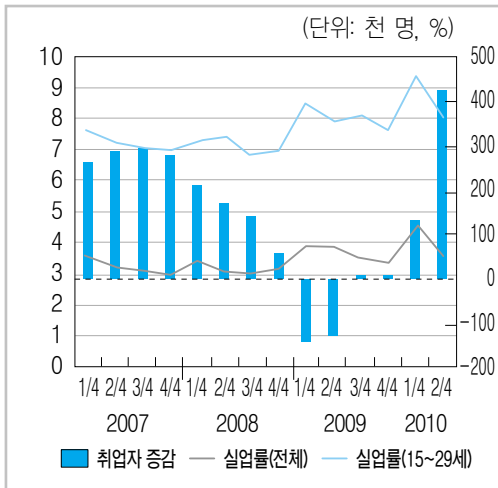
7. 고용

■ 취업자 수, 1/4분기 13만2천 명, 2/4분기 43만3천 명, 상반기 전체 28만3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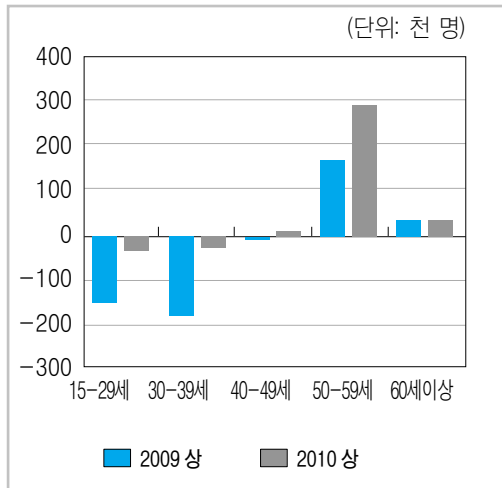
－ 고용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개선은 미흡

- 청년실업률 확대: 8.3%(2009년 상반기) → 8.6%(2010년 상반기)
- 상반기 50세 이상 위주의 취업자(33만1천 명)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상회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이 전체의 97% 차지
-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가 전체의 89% 차지

<그림 I - 22>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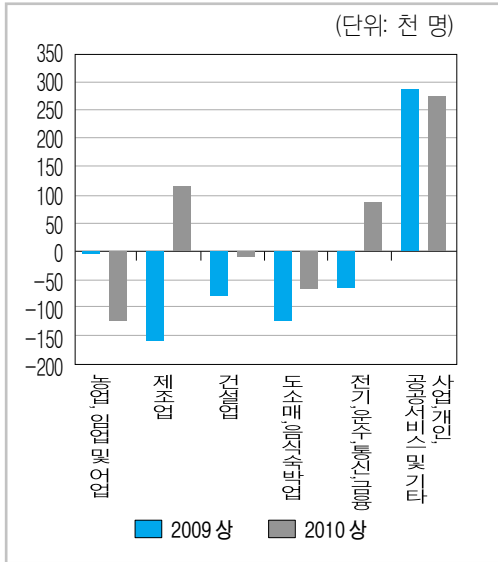


<그림 I - 23> 연령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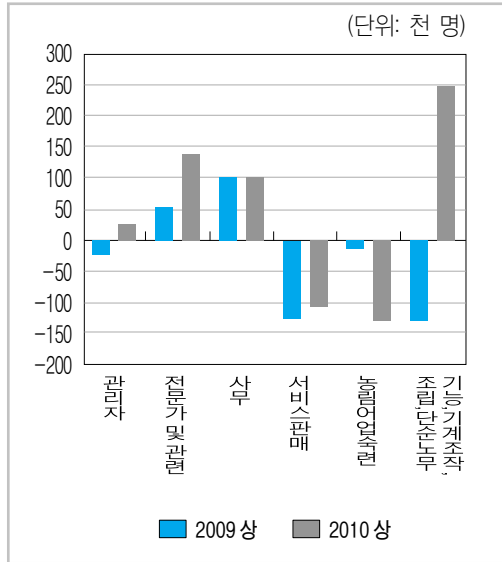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1 - 24> 산업별 취업자 증감



<그림 1 - 25> 직업별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8. 금리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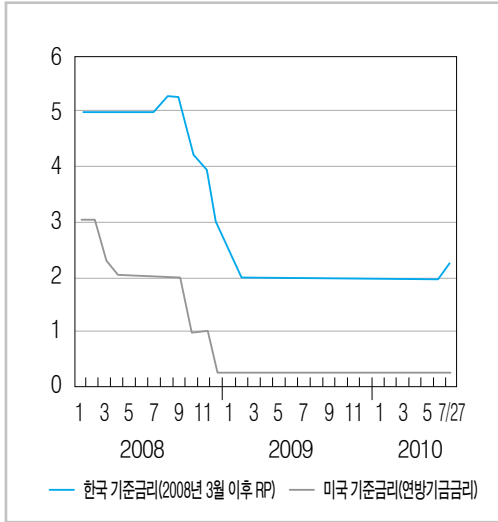
■ 시장금리: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

-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7월 8일 0.25%p)의 기대감으로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반전
 - 회사채(3년, AA-, %): 4.48(5월) → 4.65(6월) → 4.80(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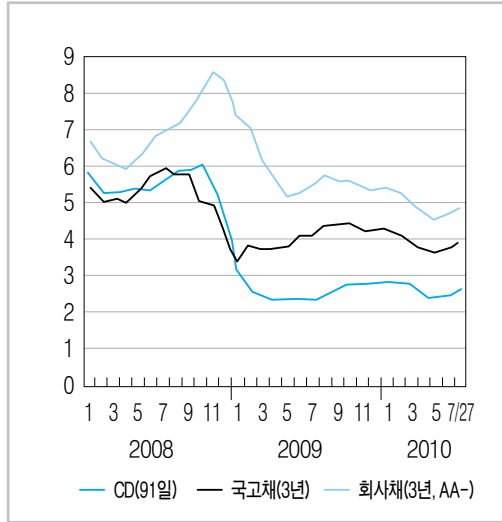
■ 원화가치, 3월 이후 약세로 반전되었으나 7월 들어 1,200원 전후 등락

- 유럽 재정위기 진정조짐, 위안화 절상, 국내 기준금리 인상, 무역수지 흑자 등이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원/달러(평균): 1,163(5월) → 1,212(6월) → 1,194(7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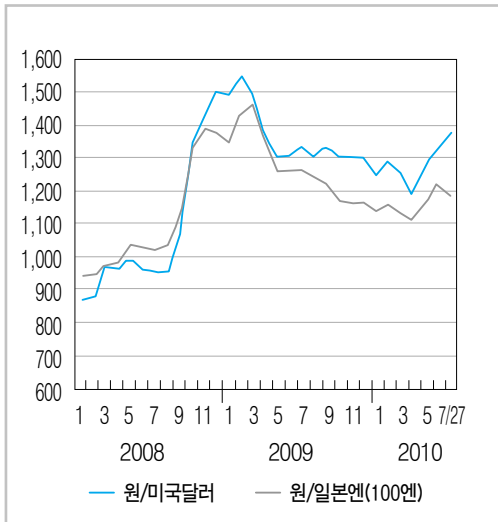
<그림 I - 26>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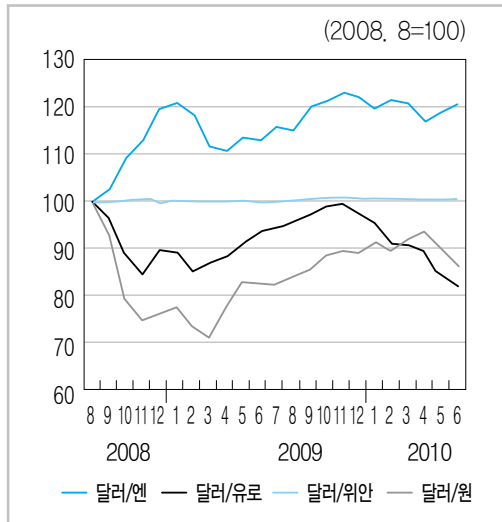
<그림 I - 27> 시장금리



<그림 I - 28> 원화 환율



<그림 I - 29> 주요 통화가치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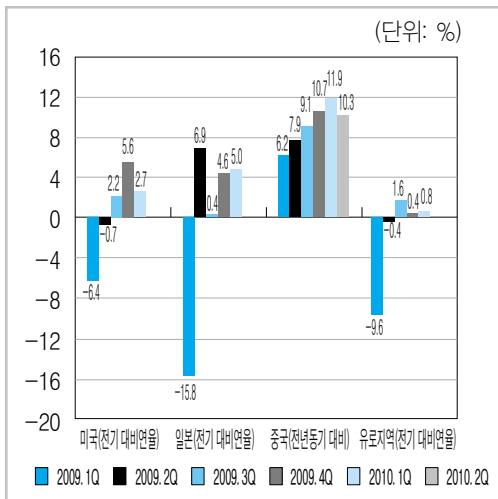
1. 대내외 여건
2. 2010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 하반기 회복세 다소 약화

- 상반기, 기저효과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회복세 시현
 - 미국, 지난해 4/4분기(전기 대비 연율 5.6%)에 이어 올 1/4분기에도 3.0%의 성장세를 지속
 -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견조한 수출과 경기부양책 효과로 1/4분기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
 - 중국경제는 기저효과 및 내수부양책에 힘입어 상반기 중 11.1%(1/4분기 11.9%, 2/4분기 10.3%)의 고성장세 회복
 - 유로지역은 독일 등 북유럽국가들의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올 들어 회복세 약화
- 이를 반영 주요 국제기구들의 2010년 성장률 전망치도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음.
 - IMF: 3.1%(2009년 10월) → 3.9%(2010년 2월) → 4.2%(2010년 4월) → 4.6%(2010년 7월)
 - OECD: 3.4%(2009년 11월) → 4.6%(2010년 5월)

<그림 II-1> 최근 주요국 성장률



<표 II-1> 주요국 성장률 전망

구 분	2009	2010			
		IMF		OECD	
		2010. 4	2010. 7	2009. 11	2010. 5
세계	-0.6	4.2	4.6	3.4	4.6
미국	-2.4	3.1	3.3	2.5	3.2
일본	-5.2	1.9	2.4	1.8	3.0
유로	-4.1	1.0	1.0	0.9	1.2
중국	9.1	10.0	10.5	10.2	11.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 2010.
 OECD, Economic Outlook No.87, May 2010.

- 하지만 최근 중국 및 미국의 경제지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유럽경제도 재정 문제로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하반기 회복세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

① 중국, 긴축강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 조짐

- 인플레이 및 자산시장 버블 억제를 위한 긴축조치 강화
 - 환율 유연성 높이면서 위안화 절상 가능성
 - 부동산 억제책 지속(올 들어 기준을 3차례 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등)
 - 7월부터 일부 품목(406개)에 대한 수출환급세 중단
-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상승세 다소 약화
 - 제조업PMI(기준=50): 55.1(2010년 3월) 55.7(4월) 53.0(5월) 52.1(6월)
 - 산업생산(전년동기, %): 19.6(2010년 1월 4일) 17.8(4월) 16.5(5월)

② 미국, 고용불안 및 주택경기 불투명으로 소비 회복 지연 우려

-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 폭 둔화
 - 비농림 민간고용증가(만 명): 15.8(3월), 24.1(4월), 3.3(5월), 8.3(6월)
- 생애 최초주택구매자 세제공제 혜택 종료(4월) 주택판매 하락
 - 주택판매(기존+신규): 623만 채(2010년 4월), 596만 채(5월)
- 소매판매 연속 두 달 감소했으며 미 연준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 소매판매(전월 대비%): 0.6(4월), -1.0(5월), -.05(6월)
 - FRB의 올 미국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4월 3.2~3.7% → 7월 3~3.5%

③ 유럽 재정긴축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 PIIGS국 재정위기 우려로 전 유럽국가들 강력한 재정긴축 시행

- ECB가 유로존 은행에 공급한 대출(4420억 유로)회수로 신용경색 우려

■국제유가, 하반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요인

- 경기회복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증대
- OPEC의 가격방어를 위한 감산지속 가능성
-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의 지정학적인 불안요인, 멕시코만 누유사고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

- 하반기 국제유가 상승세 제약요인

- 유럽 재정문제에 따른 긴축, 중국 등 경기부양책의 단계적 축소 등으로 수요증가세 둔화
- 달러화 약세 완화에 따른 석유제품에 대한 자금 유입 감소
- 주요국의 석유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
- 선진국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대체에너지 활용 증가 등으로 석유수요의 구조적 변화

- 종합적으로 하반기 국제유가는 상반기와 유사 혹은 소폭 상승할 전망

- 주요 유가 전망기관들은 2010년 하반기 국제유가를 두바이유는 배럴당 75달러 내외, WTI는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전망

■국제금융시장, 유럽위기 점차 안정되겠으나 높은 불확실성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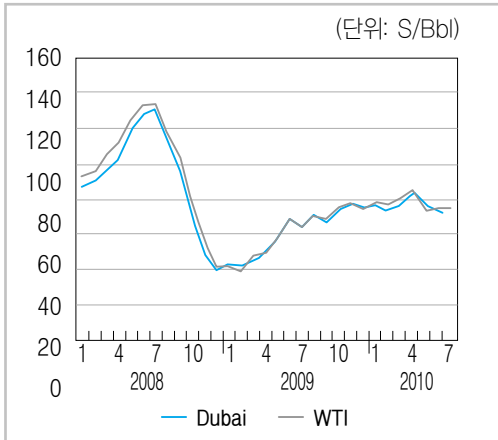
- EU, IMF의 구제금융 등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면서 유럽 재정문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갈 전망

- 7,500억 유로의 지원은 유로권 총재정수지 적자 규모(-6.6%)와 유사한 수준의 큰 규모
- 재정문제로 크게 치솟았던 그리스의 CDS프리미엄도 최근 하락세
- * 그리스(bp): 283(2009년 말) → 965(2010년 5월 7일) → 775(7월 20일)
- 재정문제 관련국들의 국채발행 성공

* 그리스: 19억5천만 유로 규모의 13주 만기 단기채 발행에 성공(7월 20일)

* 스페인: 60억 유로의 국채 발행에 성공(7월 20일)

<그림 II-2> 최근 국제유가 추이



<표 II-2> 유가 전망

구분	유종	2009	2010			2011
			상반	하반	연간	연간
CERA(5/26)	Dubai	62.3	76.8	71.9	74.4	80.6
CGES(6/21)	Brent	61.8	77.6	75.8	76.6	79.0
EIA(7/7)	WTI	61.7	78.2	79.3	78.7	82.5
PIRA(6/29)	WTI	61.7	78.2	82.9	80.6	90.0

자료: CERA - 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EIA - 美 에너지정보청
 PIRA - 석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하지만 시장불안의 재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높은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
 - 그리스 등 재정위기 국가의 경우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사회보장비 과다 지출 등으로 재정적자 축소 쉽지 않은 구조
 - * 서비스업 의존: 그리스 79.5%, 포르투갈 75.9%, 스페인 71.4% 등
 - * 낮은 저축률: 그리스 9%, 포르투갈 12%, 스페인 21%, 유로존 23%
 - * 유로존 가입으로 독립적인 금융·환율 정책이 불가능
 - 재원마련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회원국 불협화음, 의회와의 마찰, 국민반대 등으로 즉각적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각국이 실효성 있는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또한 유로존 금융회사가 보유한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채권은 2조 유로로 유로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2%에 이르는 규모로 투자 심리 위축 요인 가능성

■ 대내여건,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에 따른 경기부양여력 약화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들 정상화
 - 중소기업 신용보증 비율 하향조정: 95%(2009년) → 90%(2010년 상반기)
 - 은행자본확충펀드 보유 후순위채 시장 매각(3월)
 - 재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하반기 중 종료 예정
- 2010년 재정규모, 재정 건전성 강화로 전년 대비 감소
 - 2010년 예산은 291조8천억 원으로 2009년 추경(301조8천억 원) 대비 3.3% 감소
 - 2009년 본예산 대비로는 2.6% 증가했지만 2005~2009년 평균 예산 증가율 7.9%에 비해 낮은 증가
 - 특히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0.1%)의 영향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40%(약 108조 원)에 불과

〈표 II -3〉 2010년 재정규모와 증가율

(단위: 조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본예산	추경	예산(안)	증가율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총지출	284.5조 원	301.8조 원	291.8조 원	2.50%	-3.30%

자료: 기획재정부

-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동
 -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 2.00%(2009년 2월) → 2.25%(2010년 7월)
 - 추가 인상 시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높아져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이 감소 되고 투자도 위축
 -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해 부동산 침체가 심화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 자본유입이 증가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채산성 악화를 통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2. 2010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은 IMF 전망(2010년 7월)을 따라 4.6%로 전제
 - 미국 3.3%, 일본 2.4% 그리고 중국은 10.5%로 가정
- 국제유가는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치를 감안해 배럴당 75달러 가정
 - 전년 평균(62달러/배럴) 대비 약 20% 상승
- 기준금리, 대내외 불안요인을 감안해 완만한 인상이 예상
 - 본격적인 통화긴축 전환이라기보다는 금리정상화 차원의 인상
 - 하반기 0.25%p씩 총 3회 인상하는 것으로 전제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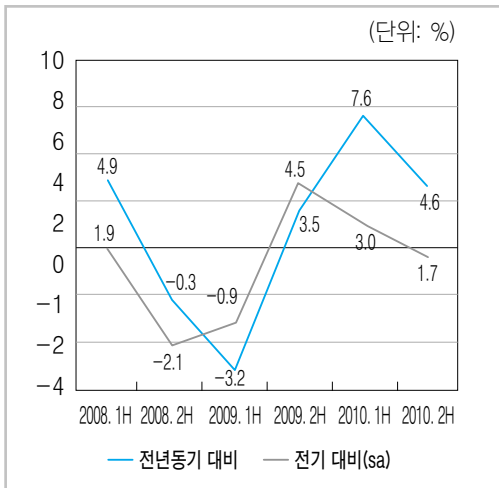
외생변수	단위	2009년	2010년
GDPCH(중국 성장률)	%	9.2	10.5
GDPJP(일본 성장률)	%	-5.2	2.4
GDPUS(미국 성장률)	%	-24	3.3
OIL\$DUBAI(두바이)	\$/bbl	61.8	75.0
RP(기준금리, 기말)	%	2.00	2.75

■ 경제성장률: 7.6%(상반기) → 4.6%(하반기), 6.1%(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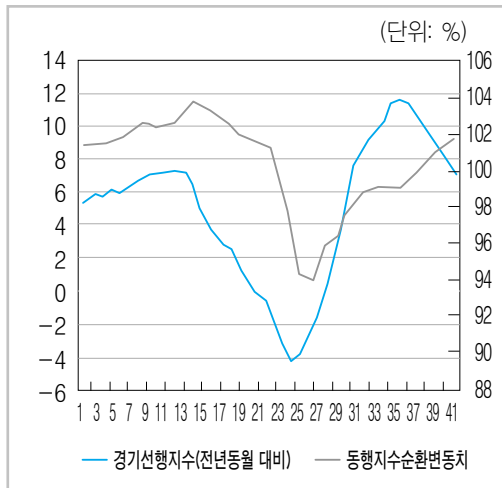
- 2010년 연간 성장률, 세계경제 회복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5%대의 빠른 회복세 예상
 - 수출: 4%대 세계경제 성장 전망 등 대외여건 호조로 견조한 증가세
 - 내수: 고용 및 임금 회복, 기업투자 여력 증대 등으로 점진적 회복
-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성장속도 둔화 전망

- 하반기 재정 및 통화 정책 정상화 시행에 따른 내수회복세 둔화
-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 환율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 둔화
- 기저효과 약화: -3.2%(전년동기 대비, 2009년 상반기) → 3.5%(2009년 하반기)
- 선행지수의 증가세가 6개월째 둔화하면서 향후 경기둔화를 예고

<그림 II -3> 반기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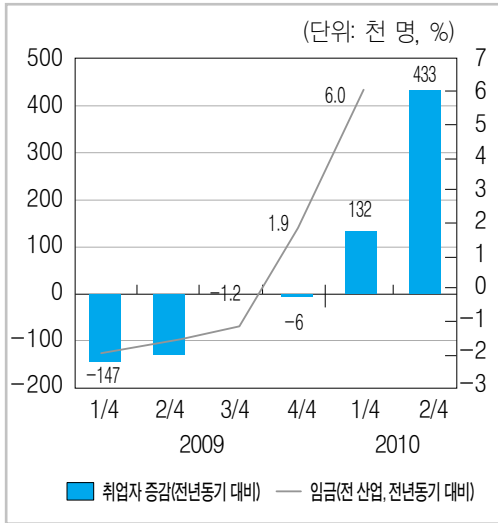
<그림 II -4>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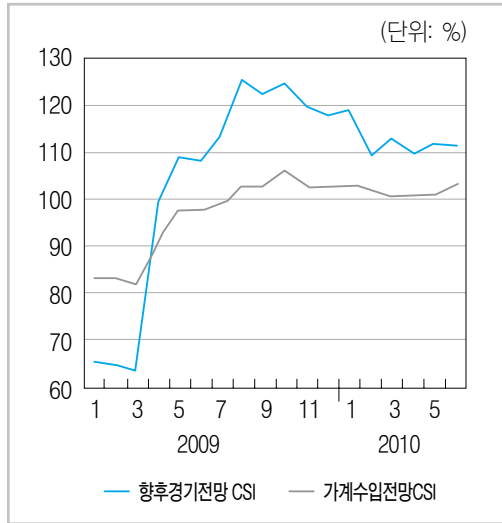
■ 민간소비: 5.0%(상반기) → 3.4%(하반기), 4.2%(연간)

- 최근 고용 및 임금 개선, 환율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회복세
 - 취업자 수: 올 1월 증가세로 반전된 후 5월까지 연속 증가세 확대
 - 제조업임금: 2008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 → 2.6%(2009년 4/4분기) → 6.8% (2010년 1/4분기)
- 하반기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경기 약세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 취업자 증가에 크게 기여한 희망근로사업 8월에 종료 예정 → 고용 회복세 약화
 - 부동산 경기 하강, 물가상승 등 소비회복세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소비심리지수, 올 들어 증가세 둔화 추세

<그림 II -5> 제조업임금과 취업자 증감



<그림 II -6> 소비심리지수



■ 설비투자: 29.4%(상반기) → 12.8%(하반기), 20.3%(연간)

- 2010년 연간 설비투자는 지난 2년간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환율 하락 등을 바탕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08년(-1.0%), 2009년(-9.1%) 연속 2년 설비투자 감소로 생산증가율이 생산 능력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가동률도 80%대를 상회
 - 지난해 기업들의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현금성 자산 보유규모 확대(2009년 상장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84조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 환율 하락으로 수입 설비의 비용이 완화되는 점도 투자 증가 요인¹⁾
- 하반기에는 설비투자 증가세가 상반기보다는 둔화될 전망
 - 대외적 불확실성, 대내적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 원자재 가격 및 금리상승 등 투자비용 상승

1) 환율 하락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느리게 반영되는 반면 수입품 가격하락은 즉각 반영됨에 따라 환율과 설비투자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임.

- 대기업(7월)에 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표 II -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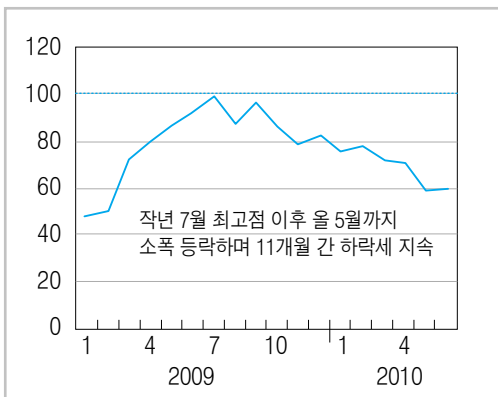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조정압력(a-b)	-19.1	-8.9	1.2	12.8	21.6	14.3
a. 제조업생산증가율	-16.5	-6.6	4.4	16.8	26.8	20.1
b.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2.6	2.3	3.2	4.0	5.1	5.8
제조업 평균가동률(%)	66.9	74.2	78.8	78.4	80.5	83.0

■ 건설투자: -0.6%(상반기) → -1.1%(하반기), -0.9%(연간)

- 민간건설 회복이 지연되고 SOC 예산의 사실상 동결로 공공건설 증가세 둔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세
 - 수도권 지역의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대출 규제 지속,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적체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 2010년 SOC 예산 증가세 둔화: 24조8천억 원으로 2009년 대비 0.3% 증가

〈그림 II -7〉 건설기업 BSI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표 II -6〉 미분양주택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2월	12월	12월	3월	5월
계	112.3	165.6	123.3	112.9	110.5
(준공 후)	17.4	46.5	50.1	50.8	49.3
민간부문	110.7	164.3	123.0	112.8	110.5
공공부문	1.5	1.3	0.3	0.1	0.0
수도권	14.6	26.9	25.7	26.1	27.6
지방	97.6	138.7	97.6	86.8	82.8

자료: 국토해양부

- 하반기에는 재정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 부진, 정책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
 - 국내건설수주 감소세 전환: -5.8%(2009년 상반기) → 9.4%(하반기) → -3.5%(2010년 1~5월)
 - 하반기 사업비(예산, 기금, 공기업) 감소: 163조 원(2010년 상반기) → 108조 원(하반기)
 - 민간주택의 신규 분양침체, 준공 후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 지방선거 이후 정책리스크 확대: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의정부 경전철,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인 아라뱃길 재검토 등

■ 경상수지: +116억 달러(상반기) → +84억 달러(하반기), +200억 달러(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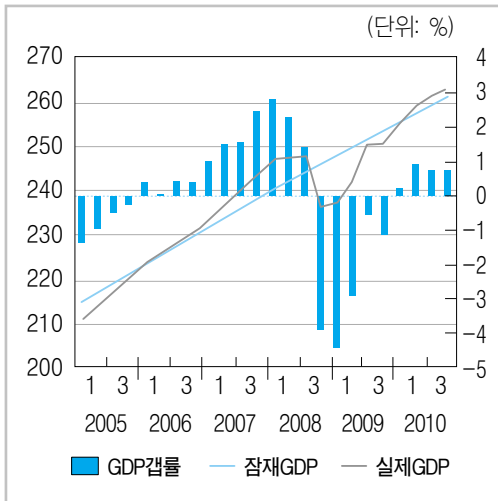
- 수입과 수출증가세 격차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
 - 상반기 약 34%의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선진국의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 감소, 중국의 경기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 중 약 17% 내외의 증가율로 둔화될 전망
 - 하지만 수입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빠른 약 25%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서비스수지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가 지속될 전망
 - 소득수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흑자가 유지되겠지만 경상이전수지는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에 대한 송금 증가,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추세를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 2.6%(상반기) → 3.2%(하반기), 2.9%(연간)

- 하반기 총수요압력 증가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대 상승 전망
 - GDP갭률이 올 1/4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하반기 총수요회복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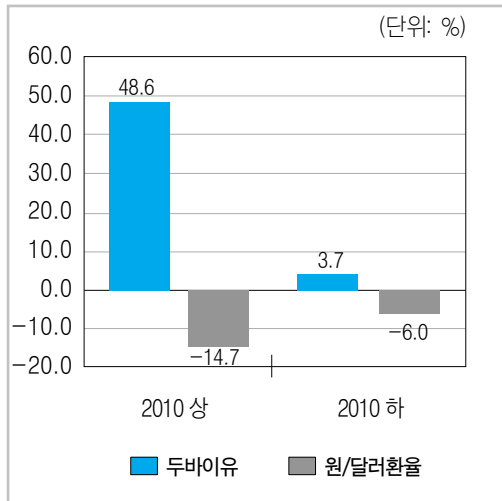
- 또한 올 봄 이상기후로 인한 가을 농산물 가격 불안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등도 하반기 물가상승요인
 - 최근 위안화 절상도 수입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도 올 하반기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효과
- 하지만 세계경제의 둔화 조짐으로 원유를 포함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 폭이 크지 않고 원화절상 등은 물가 오름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
- 유가상승률 + 원/달러상승률: 34.0%(2010년 상반기) → -2.3%(2010년 하반기)

<그림 II -8> GDP갭률



자료: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
잠재GDP는 HP필터로 추정

<그림 II -9> 유가 및 원화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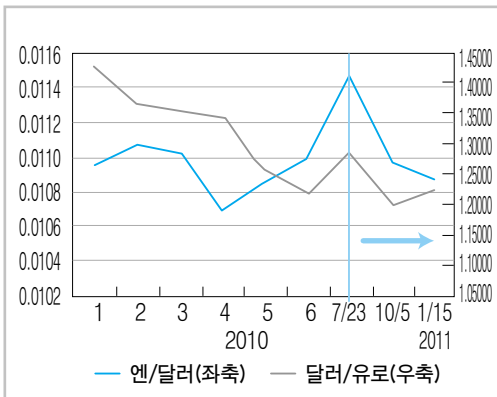
주: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치

■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4.9%(상반기) → 5.1%(하반기), 5.0%(연간)

- 시장금리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점차 상승하며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전망
-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

-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시장금리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질 전망
 - 여전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시장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 또한 미국 및 중국의 경기 둔화의 우려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하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하락

<그림 II - 10> 달러가치 전망



주: IB들의 전망치 평균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II -7> 주요 환율 전망

구분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엔/달러	평균	91.23	91.91	96.00
	최고	96.00	100.00	105.00
	최저	85.00	83.00	91.00
달러/유로	평균	1.2008	1.2245	1.1775
	최고	1.3200	1.3500	1.3500
	최저	1.1500	1.0800	1.0000

주: JP Morgan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7. 14.~7. 19.

■ 원/달러 환율: 1,154원/달러(상반기) → 1,133원/달러(하반기), 1,143원/달러(연간)

-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불안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진정 및 미국 성장 둔화 전망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대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개선,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등 수급측면에서 달러 공급 우위
 -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위안화 절상 가능성도 원화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또한 미국의 회복세 둔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IB들은 향후 3, 6개월까지는 달러화가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약세 전망

〈표 II-8〉 2010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9년	2010년						
	연간	1/4	2/4	3/4	4/4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0.2	8.1	7.2	4.4	4.9	7.6	4.6	6.1
(SA, 전기 대비%)		2.1	1.5	0.6	0.7	3.0	1.7	
민간소비	0.2	6.3	3.7	3.2	3.6	5.0	3.4	4.2
건설투자	4.4	2.3	-2.7	-1.9	-0.4	-0.6	-1.1	-0.9
설비투자	-9.1	29.9	29.0	15.7	10.1	29.4	12.8	20.3
소비자물가	2.8	2.7	2.6	2.9	3.5	2.6	3.2	2.9
생산자물가	-0.2	2.6	4.2	4.1	4.5	3.4	4.3	3.9
경상수지(억 달러)	426.7	13.4	102.8	35.9	47.7	116.1	83.6	199.8
상품수지(억 달러)	561.3	74.3	156.5	94.7	100.5	230.8	195.2	426.0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35.8	1036.3	1206.8	1199.0	1196.7	2243.1	2395.7	4638.9
증가율%	-13.8	32.6	34.6	21.5	11.8	33.6	16.5	24.2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174.6	962.0	1050.3	1104.4	1096.2	2012.3	2200.6	4212.8
증가율%	-25.7	37.7	45.7	31.5	19.8	41.7	25.4	32.7
서비스 및 기타수지	-134.6	-61.0	-53.7	-58.7	-52.9	-114.7	-111.6	-226.3
환율(원/달러, 평균)	1278.4	1144.1	1163.5	1145.0	1120.0	1153.8	1132.5	1143.1
회사채수익률(3yrs, AA-)	5.8	5.3	4.6	4.9	5.2	4.9	5.1	5.0
실업률(%)	3.6	4.7	3.5	3.4	3.4	4.1	3.4	3.8

이슈분석

지방재정난 해법

1. 논의 배경
2.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3. 정책대안

이 주 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경 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논의 배경

■ 성남시 지불유예선언(moratorium), 호화청사 신·증축, 선심성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일련의 사태는 아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이나 지방재정 관련 사전적·사후적 관리제도 부재로 이러한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성남시의 문제는 지방재정 위기라기보다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간 수익배분 갈등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판단됨.

- 호화청사 신·증축과 행사·축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로 판단됨.

- 그러나 지방정부 파산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중앙정부가 파산을 방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도록 하고 이것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셈임.

-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독이나 중앙정부의 상시감독이 취약하고 재정위기 조기경보체제 및 대응능력 미흡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채와 지방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국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

- 지방채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최근 5년간 연평균 22.1%나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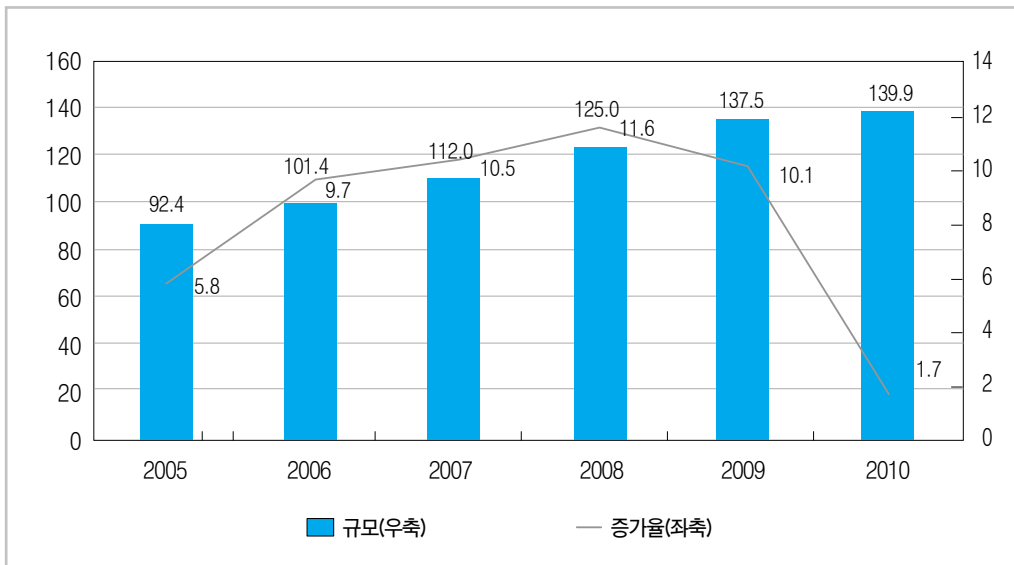
- 지방재정 악화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2. 지방재정 현황과 문제점

가. 지방재정 현황

- 2010년 지자체 순계예산은 138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쳐 지난 5년 연 평균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그림 III-1> 연도별 지자체 순계예산 규모



자료: 한국은행

- 2010년 세입은 일반재원은 감소하고,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된 일반재원은 105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29조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
- 일반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5조1천억 원에 달할 전망

- 세출부문은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출은 감소

- 사회복지 26조5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가), 일반공공행정 11조9천억 원(전년 대비 15.7% 증가), 문화 및 관광 7조8천억 원(전년 대비 9.9% 증가), 환경보호 14조9천억 원(전년 대비 3.5% 증가)
- 수송 및 교통 16조4천억 원(전년 대비 10.4%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12조8천억 원(전년 대비 11.5% 감소), 과학기술 4천억 원(전년 대비 41% 감소)

■ 2009년 통합재정수지 7조1천억 원 적자 발생

- 2009년 총수입은 185조4천억 원이고 총지출은 192조6천억 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1천억 원의 적자 발생
-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와 비과세 감면 확대에서 기인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1조8천억 원 세입경정), 노후차량 교체 활성화를 위한 취득등록세 감면(828억 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조정(913억 원),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2,054억 원)
- 사회복지 지출소요 급증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대응한 지방비 지출 증가가 재정적자 원인으로 작용
 - 사회복지 지출은 2009년 기준 24조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5천억 원 증가하여 전체 세출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증가
 - 최근 5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7.1%로 순계예산 증가율 6.6%에 비해 2.6배나 빠르게 증가(2005년 12조8천억 원, 2006년 15조3천억 원, 2007년 17조3천억 원, 2008년 21조7천억 원, 2009년 24조1천억 원)
 - 국고보조금이 2008년 26조 원에서 2009년에 32조5천억 원으로 증가한 데 대응하여 지방비용은 2008년 13조4천억 원에서 2009년 18조7천억 원으로 5조2천억 원 증가
- 기타 청사 신증축 비용(1조4천억 원)과 낭비성 지역축제 및 행사비용(8,678억 원)²⁾

등도 지방재정 악화에 일조

나. 지방재정 문제점

■ 재정자립의 지속적인 악화

- 1998년 63.4%에 달하던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0년 만인 2007년에는 53.6%로 10%p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52.2%로 하락(<표 Ⅲ-1> 참조)

<표 Ⅲ-1> 재정자립도

(단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립도	59.4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주: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

- 2009년 재정자립도가 10~3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는 138개이며, 이는 전체의 56%에 해당
- 2008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6곳의 세원 대비 가용재원 비율 10% 이하(인천시 가용재원 -6,597억 원)
- 2010년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는 137개(전체의 55.7%)로 2009년 114개에 비해 24개 증가
 - “지방세 수입+세외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는 2009년에 1개에서 2010년에 40개로 증가
 -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7개 지방정부(광주, 부산, 대구광역시, 전남, 경북 일부 시 등)는 2010년 예산에서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인건비 예산을 필요한 금액의 80% 수준으로 편성

2) 행사 및 축제비용은 2008년 기준

■ 지방채무의 급속한 증가

- 지방채무는 2009년 말 기준 25조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
 - 2009년 증가율이 두드러진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경기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과 사회복지지출 확대,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응한 비용 증가로 지방재정 적자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

〈표 Ⅲ-2〉 지방채무

(단위: 조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채무	16.9	17.4	17.4	18.2	19.2	25.6
증가율		3.4	-0.1	4.4	5.6	3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2010.

■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

- 2008년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47조3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1% 증가
 - 이는 지방 총채무의 2.5배에 달하는 규모
 -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주요 원인은 도시개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부채의 급증
 -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5.5% 증가하여 2008년 총부채는 24조8천억 원으로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52.4%를 차지
-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채무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지방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

■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효율성 문제 야기

- 세출부문에 비해 세입부문 분권수준이 낮아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음.
 -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2009년 53조 원으로 지자체 총

수입의 38.5%

-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지방세) 간 연계를 통한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수행
 -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조세부담 증가가 정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확대를 도모하여 재정지출 확대 추구
 - 재정지출에서도 주민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필요도 없음.
 - 주민들도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출 행위에 대해 지방정부를 감시할 유인이 없음.
 - 호화청사 신증축, 선심성 행사 및 축제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고 주민과 중앙정부의 감시기능이 미약하기 때문

■ 과세 자주권 활용 유인 부족

-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정치적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세 자주권을 활용하지 않으려 함.
 - 이는 주민들이 추가 조세부담에 의한 추가 지방공공재 소비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현재 지방공공재 공급이 과소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음.
- 지방교부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탄력세율을 이용한 세수입 확대는 교부세의 삭감으로 이어지므로 탄력세율을 높일 유인이 낮음.
 - 비록 지방교부세법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표준세율을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하므로 어떤 지방정부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기준재정수입 산정액이 증가하여 그 지방정부의 교부액이 감소될 위험이 있음.
- 다중부과방식 조세체제로 인해 주민부담의 일부만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다른 정부 또는 계층의 세수를 보존하는 불합리성 존재

- 지방세의 많은 세목이 부가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한 지방정부의 수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지방정부와 관계없는 다른 세목 수입도 증가
 - 탄력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의 일부만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세수를 보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율인상이 작아짐.
-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세율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편익과세로서의 재산세 기능이 미약함.
-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주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실질적의 과세자주권은 없는 상태
 -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의 경우 자치단체가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 동일한 크기로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율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

〈표 Ⅲ-3〉 지방재정관리제도

구분	지방재정관리제도	법
사전적	증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지방재정법 제38조
사후적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법 제55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제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지방재정 운용상황 주민공개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 시스템 취약

- 현재 가장 강력한 사전적 관리제도로는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를, 사후적 관리제도로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꼽을 수 있음.
-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

- 하여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 상황을 정례적으로 분석·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또는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제도
- － 현행 관리제도의 문제점
-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계속 사업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한도액 초과가 가능하고 2009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추경 등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에 한계를 노정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평가하여 하위단체에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수준이고 그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도 결과공개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재정위기 시 조속한 재정건전화 유도에 미흡

3. 정책대안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주민소환제도 등 사전적·사후적 관리 강화

-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경우 재정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하고 재정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그 권한을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대행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 주민소환제도 강화
-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악화된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주민소환을 가능하게 하도록 주민소환제도를 강화
- － 주요 재정소요 정책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
- 청사신축, 축제, 경전철 및 경기장 건설 등 재정소요가 큰 정책사안을 직접적인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안별 주민투표제 도입

-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 강화
 - 지방재정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표를 재정위기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진단제도와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를 연계하여 주기적인 재정진단을 시행·관리

-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 지방예산편성·심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

■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강화

- 과세자주권 강화로 자체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이전재원 비중을 줄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재산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의 세목을 단일 세목으로 통합하여 지방정부 재정책임성 강화
 - 재산세 표준세율을 단일세율로 설정하고 지방정부가 비례세율을 유지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개선
-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체수입 확보 인센티브 강화
 - 탄력세제 활용이 지방교부세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방정부 세수확보 노력 지원

■ 지방공기업 채무의 지방정부 채무 포함 및 민영화 추진

- 지방공기업 부채 대부분이 지방정부 정책사업 대행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정부 채무로 분류하고 관리
- 적자가 지속되는 지방공기업은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게 구조조정 시행
- 부채비율이 높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지방공기업은 민영화 추진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5년	4.0	6.2	17,531	4.6	4.3	1.9	5.3	-0.4
2006년	5.2	8.1	19,722	4.7	6.6	3.4	8.2	0.5
2007년	5.1	7.2	21,695	5.1	5.4	4.2	9.3	1.4
2008년	2.3	2.9	19,296	0.9	4.2	-1.9	-1	-2.8
2009년	0.2	-1.6	17,175	0.2	4.9	-0.2	-9.1	4.4
2004년 4/4	2.7	6.2		1.5	3.2	-1.4	1.8	-3.5
2005년 1/4	2.7	4.8		2.5	3.7	-0.3	3.4	-3.1
2/4	3.4	3.9		4.7	4.7	1.8	2.8	0.9
3/4	4.5	6.7		5.7	6.3	1.5	4.1	-0.3
4/4	5.1	9.3		5.5	2.7	3.9	10.8	0.3
2006년 1/4	6.1	9.4		5.7	6.0	3.8	7.2	1.9
2/4	5.1	9.1		4.5	6.7	0.1	8.0	-4.2
3/4	5.0	8.7		4.3	6.0	4.0	12.0	-0.5
4/4	4.6	5.4		4.5	7.5	5.7	5.7	5.1
2007년 1/4	4.5	4.5		4.9	5.9	7.3	12.6	4.4
2/4	5.3	7.2		5.2	6.3	5.7	13.0	2.0
3/4	4.9	6.3		5.4	4.8	1.5	4.0	-0.2
4/4	5.7	10.2		4.7	4.7	3.1	8.0	0.4
2008년 1/4	5.5	8.9		4.5	3.6	-0.6	2.8	-2.5
2/4	4.4	8.3		2.7	4.3	0.6	2.0	-0.5
3/4	3.3	5.3		1.8	4.6	2.1	5.3	0.4
4/4	-3.3	-9.4		-3.6	4.7	-8.7	-13.3	-7.7
2009년 1/4	-4.3	-13.6		-4.4	7.2	-7.4	-23.1	2.8
2/4	-2.2	-7.2		-1	6.7	-2.3	-17.3	5.1
3/4	1.0	1.7		0.7	5.3	0.4	-7.0	4.4
4/4	6.0	13.0		5.8	1.1	7.1	13.3	5.0
2010년 1/4	8.1	20.7		6.3	3.8	11.4	29.9	2.3
2/4	7.2	18.0		3.7	3.2	6.1	29.0	-2.7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26.8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6	14.4	3,093.8	18.4	279.1	53.9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281.7	58.8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6.7	-57.8	2,012.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561.3	426.7	2,699.9	1,167.6
2008년 2월	311.8	18.9	326.2	28.4	-5.2	-23.7	2,623.6	937.3
3월	359.9	18.4	371.1	26.7	0.8	-1.5	2,642.5	991.7
4월	378.5	26.4	382.6	29.3	17.3	-15.8	2,604.8	999.7
5월	393.9	26.9	387.0	29.6	3.7	-5.7	2,582.0	1,031.4
6월	372.6	16.4	378.3	32.7	34.3	17.3	2,581.0	1,043.4
7월	409.6	35.6	429.5	47.0	4.9	-24.3	2,475.2	1,008.5
8월	366.1	18.1	404.2	36.4	-29.3	-46.8	2,432.0	1,081.8
9월	374.3	27.6	395.3	45.4	-7.9	-12.2	2,396.7	1,187.7
10월	371.1	7.8	361.0	10.3	21.0	46.5	2,122.5	1,291.4
11월	288.4	-19.5	288.5	-15.0	12.3	24.1	2,005.1	1,482.7
12월	271.2	-17.9	265.8	-21.6	14.2	7.8	2,012.2	1,257.5
2009년 1월	211.3	-34.5	249.0	-31.4	-17.6	-16.1	2,017.4	1,368.5
2월	254.0	-18.5	226.0	-30.7	31.0	35.9	2,015.3	1,516.4
3월	278.9	-22.5	239.2	-35.5	69.7	66.5	2,063.4	1,377.1
4월	303.3	-19.9	248.7	-35.0	61.1	42.7	2,124.8	1,348.0
5월	278.2	-29.4	234.1	-39.5	48.7	34.4	2,267.7	1,272.9
6월	322.1	-13.6	256.9	-32.1	66.0	53.8	2,317.3	1,284.7
7월	319.1	-22.1	276.8	-35.6	61.1	44.2	2,375.1	1,240.5
8월	289.5	-20.9	274.1	-32.2	33.2	19.2	2,454.6	1,244.9
9월	339.2	-9.4	297.6	-24.7	52.7	40.5	2,542.5	1,188.7
10월	339.7	-8.5	304.0	-15.8	56.8	47.6	2,641.9	1,200.6
11월	339.9	17.9	295.3	2.4	58.4	42.8	2,708.9	1,167.4
12월	360.1	32.8	329.2	23.9	40.2	15.2	2,699.9	1,167.6
2010년 1월	307.4	45.5	314.7	26.4	13.8	-6.3	2,736.9	1,156.5
2월	330.4	30.1	310.1	37.2	15.6	1.7	2,706.6	1,158.4
3월	374.3	34.2	355.2	48.5	45.0	18.0	2,723.3	1,130.8
4월	393.6	29.8	354.6	42.6	51.2	14.2	2,788.7	1,115.5
5월	390.3	40.3	349.1	49.1	41.7	38.2	2,702.2	1,200.2
6월	419.2	30.1	354.9	38.2	63.5	50.4	2,742.2	1,210.3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5년	2.1(1.5)	2.8(2.6)	3.7	8.1	6.9	7.0	4.68	1,073.6
2006년	0.9(0.3)	2.2(2.1)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1.4(3.6)	2.5(3.6)	3.2	5.5	11.2	10.2	5.70	1,712.5
2008년	8.6(5.6)	4.7(4.1)	3.2	0.6	14.3	11.9	7.02	1,529.5
2009년	-0.2(1.8)	2.8(2.8)	3.6	-0.6	10.3	7.9	5.81	1,429.0
2008년 2월	5.1(1.5)	3.6(0.8)	3.5(3.1)	-	13.4	11.6	6.27	1,689.5
3월	6.0(2.9)	3.9(1.8)	3.4(3.1)	3.7	13.9	11.9	6.13	1,651.2
4월	7.6(5.1)	4.1(2.4)	3.2(3.2)	-	14.9	12.7	5.91	1,776.6
5월	9.0(7.1)	4.9(3.2)	3.0(3.2)	-	15.8	13.1	6.22	1,846.8
6월	10.5(8.8)	5.5(3.9)	3.1(3.2)	5.3	15.1	12.7	6.68	1,858.2
7월	12.5(11.0)	5.9(4.6)	3.1(3.2)	-	14.8	12.1	6.99	1,569.6
8월	12.3(10.7)	5.6(4.4)	3.1(3.2)	-	14.7	11.8	7.11	1,537.5
9월	11.3(10.3)	5.1(4.5)	3.0(3.2)	0.0	14.5	12.2	7.46	1,446.6
10월	10.7(9.9)	4.8(4.4)	3.0(3.1)	-	14.2	11.9	7.95	1,201.7
11월	7.8(7.4)	4.5(4.1)	3.1(3.2)	-	14.0	11.4	8.85	1,074.0
12월	5.6(5.6)	4.1(4.1)	3.3(3.3)	-6.2	13.1	10.4	8.35	1,114.9
2009년 1월	4.7(-0.3)	3.7(0.1)	3.6(3.4)	-	12.0	9.2	7.34	1,156.4
2월	4.4(0.4)	4.1(0.8)	3.9(3.5)	-	11.4	8.8	7.07	1,139.8
3월	3.5(0.8)	3.9(1.5)	4.0(3.7)	-2.5	11.1	8.4	6.14	1,140.5
4월	1.5(1.0)	3.6(1.8)	3.8(3.7)	-	10.6	7.7	5.68	1,322.1
5월	-1.3(0.2)	2.7(1.8)	3.8(3.8)	-	9.9	7.3	5.16	1,400.5
6월	-3.1(-0.1)	2.0(1.7)	3.9(3.9)	-2.0	9.6	7.0	5.21	1,395.2
7월	-3.8(1.1)	1.6(2.1)	3.7(3.7)	-	9.7	7.7	5.46	1,460.0
8월	-3.0(1.6)	2.2(2.4)	3.7(3.7)	-	10.0	8.0	5.74	1,577.9
9월	-2.6(1.7)	2.2(2.5)	3.4(3.6)	-1.4	10.0	7.7	5.58	1,659.5
10월	-3.1(0.9)	2.0(2.3)	3.2(3.5)	-	10.5	7.8	5.60	1,630.6
11월	-0.4(1.3)	2.4(2.4)	3.3(3.6)	-	9.7	7.6	5.43	1,583.5
12월	1.8(1.8)	2.8(2.8)	3.5(3.6)	3.6	9.3	8.1	5.35	1,646.6
2010년 1월	2.8(0.7)	3.1(0.4)	5.0(4.8)	-	9.3	8.1	5.40	1,682.2
2월	2.4(1.0)	2.7(0.7)	4.9(4.4)	-	9.4	8.6	5.32	1,599.0
3월	2.6(1.6)	2.3(1.1)	4.1(3.8)	6.8	9.3	8.8	5.02	1,665.5
4월	3.2(2.4)	2.6(1.6)	3.8(3.7)	-	9.4	9.0	4.69	1,730.3
5월	4.6(2.9)	2.7(1.7)	3.2(3.2)	-	9.3	8.9	4.48	1,648.3
6월	4.6(2.6)	2.6(1.5)	3.5(3.5)	-	9.7	9.3	4.65	1,691.9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 산업	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전년동기 대비(%)	
								공공	민간
2005년	6.3	79.7	4.2	-2.8	5.9	7.3	4.1	-3.7	7.5
2006년	8.4	80.0	4.0	17.4	9.2	9.0	2.6	0.6	4.0
2007년	6.9	80.1	5.2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4	77.5	1.1	-13.8	-3.0	-7.6	4.9	6.5	2.2
2009년	-0.8	74.6	2.6	-11.8	-8.0	3.0	3.3	21.2	-5.7
2008년 2월	10.9	80.6	3.5	1.7	-6.8	-7.6	3.5	-0.9	3.1
3월	10.9	81.7	4.6	15.1	0.1	5.6	3.9	5.5	1.4
4월	11.2	82.1	6.3	3.2	-3.2	6.3	4.5	2.4	3.1
5월	9.2	80.1	3.3	-7.3	-0.6	18.1	7.8	5.0	6.3
6월	7.3	80.1	-0.7	-1.4	-2.1	-22.8	6.9	3.1	5.7
7월	8.8	79.3	4.2	16.0	8.4	-1.1	9.0	3.2	9.6
8월	2.2	78.3	2.2	-10.3	0.9	-4.9	8.4	8.9	6.4
9월	6.7	77.3	-1.8	-46.0	4.2	-36.5	15.1	6.9	17.3
10월	-1.5	76.9	-3.3	-47.5	-3.7	-23.5	5.4	20.4	-2.8
11월	-13.6	69.1	-4.6	-53.2	-13.0	-39.5	-1.0	5.7	-6.5
12월	-18.4	62.8	-4.8	-43.9	-16.5	31.5	-8.5	3.4	-16.0
2009년 1월	-25.7	62.8	-2.9	-49.1	-21.1	0.3	-0.5	25.2	-11.4
2월	-10.2	67.7	-6.0	-27.5	-12.0	-19.0	11.2	34.2	1.0
3월	-10.6	70.3	-5.2	-25.5	-20.2	-14.9	3.1	16.7	-5.0
4월	-8.2	72.4	-4.2	-27.4	-18.7	-10.7	5.5	34.0	-5.2
5월	-9.1	73.6	1.7	-25.4	-16.2	-17.9	-1.6	16.8	-11.4
6월	-1.1	76.6	7.6	-2.0	-3.4	22.7	14.6	44.4	-1.3
7월	0.7	78.7	1.2	6.1	-18.8	-1.8	-2.8	16.6	-11.6
8월	1.0	77.7	0.5	-19.6	-15.4	-27.0	-8.2	14.1	-18.9
9월	11.1	79.9	6.7	26.5	5.4	55.3	6.8	31.9	-5.4
10월	0.2	77.3	9.8	-7.9	-0.4	28.8	-5.9	3.5	-10.1
11월	18.1	78.2	9.7	56.2	10.2	78.8	3.2	8.1	1.7
12월	34.2	79.6	12.7	21.2	21.1	-19.6	12.9	18.3	9.8
2010년 1월	37.0	78.9	6.9	11.2	19.1	17.1	5.8	3.4	8.3
2월	18.9	80.3	13.1	-3.1	18.5	-6.7	-0.8	9.6	-4.3
3월	22.7	82.4	9.9	22.9	34.0	-25.3	9.2	20.1	4.5
4월	20.1	82.2	7.3	25.1	25.5	-14.6	-1.1	-0.5	1.3
5월	21.5	82.8	3.6	56.7	22.3	16.8	7.5	10.0	8.2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 / 2010년 8월 18일

1판1쇄 발행 / 2010년 8월 23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김영용

편집인 / 조경엽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